

이은숙씨(42세)는 하루 매상을 마감하는 저녁시간이면 울 초부터 불어닥친 경제한파를 실감한다. 종로에서 음식점 한우촌을 운영하던 이씨의 이같은 생각은 매상이 떨어지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씨의 금전출납부에 '보시'란 두 글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7년간 한우촌을 개업할 때 일이다. 한달 평균 2~4명 정도 밤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당

##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황스럼기도 하고 기본도 안했었다. 쓸데없이 돈이 나간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루는 무정취사에게 이런 저런 생각에 분을 식이지 못해 하대하고 쫓아내려고 했다. 이때 손님중 한 사람이 "사장님, 밖에 걸린 액자를 보니 불자 같은데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면 보시를 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이지요"라고 말했다.  
 당시 성복구 대법사 신도였던 이씨는 손님의 일갈을 큰 법문으로 받아 들었다. 그날부터 배고픈 사람들에게 언제나 밥을 나눠주며 금전출납부에는 '보시'라고 표시하기 시작했다.



실직자와 부랑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는 매일 5~7명이 찾아와 배고픔을 호소한다고 한다.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숫자다. 그러나 이제는 당황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밥과 말로써 이들을 위안해주고 있다.  
 며칠전에는 한 아주머니가 두 자녀를 데리고 찾아왔다. 첫번째 밥값이 없어 보였지만 반갑게 맞아 식사를 냈다. 잠시후 이씨의 눈은 눈물이 가득해졌다. 이들 세 사람이 5인분의 식사를 제는 간추듯이 먹는 모습 때문이다. 그리고 이씨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자는 나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지만 '보시'라는 글자만은 매일 쓸 자신이 있다"고 부처님께 다짐했다.  
 "실직자나 노숙자가 내 주변에 이렇게 많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이들이 남의 막을 입지않고 한끼 식사라도 당당하게 할 날이 오길 염원하며 초파일날 등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이은숙씨는 하루중 가장 바쁜 점심시간을 보내고 내면 어김없이 주방에 들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밥, 반찬 등을 쟁겨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3일 전국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1만여명의 불자들이 참석, 부처님의 지비광명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청정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 “慈悲喜捨 실천하자”

3일 조계사등 전국 사암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 전국의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서른세번의 타종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관불 연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조계사 법요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과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위원장 암도스님, 포교위원장 성타스님,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 등 종단지도자와 서석재 국회의원,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 고건 전총리, 김명운 권익연 추미애 의원 등 정관계 인사, 캄보디아 승정 법풍스님, 주한 인도대사, 송석구 중국대총장, 중앙신도회 명호근부회장, 민병천 서경대총장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법요식에서 월주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류에게 큰 고통을 주는 몇 가지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며 "이념의 갈등, 소우의 격차,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 남북 분단 등의 당면한 문제들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비광명사 사무량심을 실천하여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법요식에서는 남북한 및 해외불교도를 대표해 지난 3월 종단협의회와 조선불교도연맹이 합의한 공동발원문이 발표됐다. 발원문에서 남북 불자들은 "본연의 고통과 대결의 역사를 극복하고 통일조국, 지상정도를 실현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용맹정진 할 것"을 다짐했다. (발원문 전문 본지 167호 3면) 공동발원문은 남북한과 해외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서 동시 발표됐다. (임연태 기자)

**부처님오신날 모범수 319명 가석방**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둔 2일 모범 수형자 3백 19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가석방에서는 이례적으로 무기수 3명과 징역 10년이 상 징기수 29명이 포함됐다. 또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97명과 감정고시 합격자 28명, 기능대회 입상자 12명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과 관련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무기수·징기수를 이례적으로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파일 휴무관계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4월29일 오후7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김대중 대통령이 관육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법회에는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와 한승헌 감사위원장,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조세형 국회의원, 송재권헌대행, 서석재 정국회장, 박상규 국민회의 부총재, 박철언 자민련 부총재, 이해찬 교육부장관, 강인덕 통일부장관, 신익균 문화부장관, 김성훈 농림수산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 1천6백여 명이 참석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지금의 어려움 이기고 다시 도약”**  
**김대통령 봉축 메시지**

김대중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봉축메시지와 불교방송 개국 8주년 축하메시지를 각각 발표했다. 김대통령의 봉축메시지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발표된 것이다. 다음은 김대통령 봉축메시지 전문.  
 오늘도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시며 인간존중의 참 뜻을 강조했던 바로 그 날입니다. 부처님은 2천5백여년 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여 고난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인류의 대스승으로서 생명을 제도했습니다.  
 불교는 축복한 수행과 자기정제를 통해 이루어 낸 깨달음으로 자아를 발견하고, 나아가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많은 시민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어,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지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수속 시국을 격려하고 위로해 온 우리 국민의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힘을 더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불교계가 보여준 '빈 자일등'의 정신으로 당면한 국난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교를 비롯한 우리 종교계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서로 화합하여 함께 노력해 온 것은 참으로 반갑고 고무된 일입니다. 종교계가 화합하고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랑스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맑고 따뜻한 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기 2542년 5월 3일  
 대통령 김대중

**부처님오신날 특집 28면 발행**

|    |            |     |              |     |
|----|------------|-----|--------------|-----|
| 불교 | 지금 서구에선    | 10면 | 봉축 방장 범어     | 3면  |
|    | 지금 한국에선    | 11면 | 금산사 개산 1400년 | 27면 |
|    | 새로운 세기와 불교 | 12면 | 기정의 달에 쓴 편지  | 23면 |
|    |            |     | 스님길은 신부님     | 26면 |

##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금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웃을 입읍시다.

우리웃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 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승복·유치원·사원복·음식점 유니폼·도복)

①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② 문의처 02)3461-8552~3

▶ 문의처 02)3461-8552~3  
 한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

〈망란자 지〉 신국판/304쪽  
 값 7,000원

IMF가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실감하는 오늘의 보통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심덩어리로 다가옵니다.  
 “여기 그 죽음이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죽음이 또 하나의 삶인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말화가 있다”

〈고은 시인 추천사에서〉

**역사속의 빛나는 인물 100인의 죽음**

- 죽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세네카와 네로 황제군과 부의 위 6인
- 사라진 사람들/ 빛속으로 사라진 황제의 유배 카이사르의 9인
- 죽음과의 약속/ 사약을 독축한 소크라테스와 송시열
- 깨달음과 죽음이 남달랐던 제논과 백승선사
- 죽을 또한 자연 아닌가/ 장차 옥상산과 황수인, 소강철과 서화담
- 죽음보다는 철저한 삶/ 니체와 파스칼 토마스 카말라일과 소동파
- 예술, 그 광기의 죽음/ 정신병을 앓던 모차르트, 슈만, 휘트먼, 장크
- 예드가 알란 포우와 보들레르, 까미유 알로렝과 나복칙
- 화려한 명성, 처참한 최후/ 알레오프트라와 민비, 루미인과 알귀비, 사도세자와 소헌세자
-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불교의 죽음관
- 목련존자와 해가, 공조 오장순과 양관선사, 마니 태백사

도서출판 세운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3462-2277 팩스: 3462-2279